

# 企業關聯概念의 再檢討

## —經營學의 研究對象의 定立과 關聯하여

金 元 銖

### 《目 次》

I. 서 언	3. 우리 나라의 기업집단 개념
II. 기업 성립의 연혁	4. 재벌 개념의 검토
1. 기업의 성립과 발전	IV. 대기업의 평가
2. 대기업의 성립과 성격의 변화	1. 대기업의 효율성의 문제
III. 기업 집단개념의 검토	2. 대기업의 독점성의 문제
1. 기업 집단의 의의	3. 대기업의 정치 경제지배력 문제
2. 기업 집단의 유형	V. 결 언

### I. 서 언

특정의 학문이 과학으로서 정립되려면 특징적인 연구 주제 즉 연구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cf. [19] pp. 25-27) 그런데 종래 경영학 연구상으로는 연구대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다고 비판받았는데 그 까닭은 연구대상 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쉐프르그(Souonpflug, F)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었다. ([25] S.2)

“종래의 경영학의 역사를 보면 경영학의 대상이 가지는 논리적 특성 등은 설명의 중심이 되지않고… (중략)… 따라서 아직도 과학 전체의 구조 결정상 대상문제가 가지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학문은 아직까지 인식대상에 관한 기초적인 명확성과 그 인식의 사상적인 관련을 논리적인 통일체계로 체계화할 수 있는 통일적인 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학의 연구대상의 정립의 미흡함과 관련하여 지적된 위와 같은 우려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溫故而知新의 감회를 느끼게 하여준다. 왜냐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教授

\*\* 本稿는 1990年度 教育部 海外派遣研究教授基金에 의한 研究論文임

하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의 경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 기업집단 및 기업 네트워크로 구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 p.141) 이와 같은 경험대상인 기업개념의 변화 확대에 당면하여 우리는 경영학의 연구대상을 무엇으로 정립해야 할 것인가? 기업이론상으로는 기업의 경계의 확대과정에 대한 분석들은 효율성<sup>(1)</sup>의 관점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 즉 거래코스트의 절약수단으로 보는 거래코스트론의 입장에서 주로 접근되고 있다. (cf [27][3] p.134) 어떤 패러다임을 따르던 대상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종래 경영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기업은 기업경영의 단일의 의사결정주체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이므로 단독결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의 조직체로 보았었다 (ditto) 그러므로 이 기업은 행위실체이다. (cf.[2] p.66ff.)

또한 기업개념의 변화,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기업의 집중,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기업의 문제로서 독과점규제의 차원에서 고찰되어 왔다. 예컨대 카르텔, 트러스트 및 콘체른 등의 문제나 콩그머리트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의 경계가 확대되어 형성되는 기업집단 또는 기업 네트워크란 위의 일반적인 기업과는 어떻게 다르며 기존의 여러 복합기업 개념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경영학 연구대상의 정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업개념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개념간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봄으로써 경영학의 연구대상의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Ⅱ. 기업 성립의 연혁

### 1. 기업의 성립과 발전

그러면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은 언제 비롯되어 우리들이 경험하고 연구하는 실체가 되었던 것일까? 브랙포드에 의하면 “공업화 이전에는 상업이 번영하였고 상인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때에는 기업의 생산물도 적었고 상인은 옛날부터 하여 오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었다.[13] p. 그러나 공업화가 진전되자 이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가진 대기업(big business)을 성립시켜 기업의 모습을 바꾸게 하였다.” ([13] pxi, 49)

기업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企業觀에 입각해 저마다 달리 인식되는데 종래 경영학상

(1) 절약성을 반영하는 efficiency의 의미임.

으로 인식되어 온 전통적인 기업개념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cf. [1] pp.49-50)

- ① 사적 소유권을 가진 자본가가 소유하는 사적인 경제단위이다.
- ② 소유자는 실물 또는 화폐로서 자본을 투하하여 기업을 조직하거나 혹은 기존의 기업에 투자한다.
- ③ 기업가 (또는 자본가)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투하자본에 대한 보수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 ④ 기업이 행동을 하는 장(field)인 시장 및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의 조건이 가정된다.

베블렌에 따르면 인간은 제작본능(instinct of workmanship)과 수탈본능(predatory instict)의 두가지 본능을 가지는데 후자의 변형인 금전적 과시욕(pecuniary emulation)이 인간행동의 지도원리가 되고 이에 따라 사유재산과 지배계급이 형성되고 이들은 부를 소유, 축적하여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를 하는 유한계급이 되었다고 한다. ([9] pp.12-13)

## 2. 대기업을 성립과 그 성격의 변화

19세기 후반 미국의 기업은 주식회사가 됨으로서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대규모화되어 갔다. ([13] pp.52-53)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개인기업의 결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고안된 법인이었기 때문이었다. ([9] p.70)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 대(규모)기업일까? 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보통 그 기업의 자산, 생산액, 매출액 또는 고용량 등을 쓸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따르든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까?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으므로 대기업을 효율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대기업일 수 있으려면 다른 어떤 특질을 가져야만 한다. 카이젠은 대기업을 특질을 "근대적 주식회사"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기업의 구조나 경영이념 및 행동양식 면에서의 근대성과 합리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었기 때문이다. (cf [ 21] [ 9] pp.7-9)

(2) 획득 본능 또는 취득 본능이라고도 한다.

① 기업의 양적 확대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영형태와 관리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② 기업의 대형화는 경영이념이나 목표면에서 종래와 같은 단순한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지향하게 한다.

③ 대형화에 따라 점차 사적기업으로서 성격을 잃게 되어 공공성을 띄게 된다. 카이젠은 이러한 공공성을 가진 대기업을 양심적 회사(soulful corporation)로 보았다.

④ 기업의 대형화는 기업의 새로운 행동양식을 생기게 한다. 종래의 개인 기업은 시장 메커니즘과 시장위험의 틈새를 누비면서 이윤획득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행동의 준칙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대기업을 기업활동을 계획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익획득과 아울러 사회가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의 수행을 도모한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1861-64)의 전후기에 대기업을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많은 企業的 英雄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불명예스럽게도 도적 귀족(robber baron)의 칭호를 얻게 되었듯이 그들은 뇌물제공이나 기타의 정치로비에 의해 광대한 국공유지의 불하, 막대한 정부용자, 각종 독립적 특권 등을 얻었을 뿐 만 아니라, 토지투기, 자본흡수, 주가 인상조작, 제꼬리 배당, 차별운임, 건설비의 분식 등 부당 이득을 얻는 행동양식을 가졌었다.

19세기 말의 미국에서는 현저한 기업집중의 경향이 생겨 비로소 다수의 대기업을 성립되었다. 기업집중은 처음엔 풀(pool)이나 신사협정과 같은 칼텔의 형식이 중심이었으나 1879년 이후로는 석유정제업의 집중수단으로 사용된 트러스트(trust)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트러스트의 발전과 이에 의한 산업독점의 형성이나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미국 대기업을 경영규모나 자산액면에서는 대규모 기업이었으나 질적 특성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았었다. 그러나 1929년의 대공황과 이에 이은 뉴딜(New Deal)시대 이후로 대기업을 성격은 크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19] pp.27-38)

### Ⅲ. 기업 집단개념의 검토

그러면 기존의 기업의 경계가 확대되어 새로이 인식되는 기업 집단 개념은 기존의 기업 개념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일까?

## 1. 기업 집단(business group)의 의의

이는 흔히 기업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인 관점 또는 기타의 기업의 제기능의 관점에서 서로 보완을 하려는 목적으로 각 참가 구성원(집단 구성원)이 자주성을 전제로 대등성의 원칙하에 형성된 지속적인 기업 결합형태 즉 기업 협력체제를 말한다. ([20] p.30) 따라서 자본적인 연결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기업 집단 형성의 조건이 아니며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와 종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형성 동기와 관련하여 볼 때 생산적 협력체제(컴비나트, 외주, 하도급 관계를 통한 협력 기업집단 등)는 물론 경영상의 각기능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도 포함된다. 컴비나트나 공업단지 및 상가 진흥 조합집단과 같이 지역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기업 협동 조합 집단이나 관계회사 집단과 같은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또한 컴비나트 구성 기업간의 원료수수와 같이 상거래관계를 중심으로 결합할 수도 있으나 이는 단순한 시장에서의 거래관계와는 달리 지속성이라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업집단이 가지는 특질은 다음과 같다. (cf [2] pp.91-92)

- ① 자본에 의한 지배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주로 기술적 계기에 의해 형성된다.
- ③ 기능적 전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분업체제이다.
- ④ 대기업 상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호간의 결합도 포함된다.
- ⑤ 대다수는 지역적 결합을 하고 있다.
- ⑥ 상호 협력하에 공존 공영하기 위해 통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을 임원의 겸임 내지 어느 정도이상의 주식 보유를 통한 기업간의 연결관계가 확인되는 기업의 집합으로서 실제상으로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의 집단으로 보기도 한다. ([11] p.141)

기업들이 생산면, 판매면, 자본면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의 여러 이유 때문에 특정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광의의 기업의 계열화(business ancillerization)인데 이에 따라 기업의 계열집단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기업집단은 바로 기업계열로 볼 수도 있다. (cf [1] p.549) 그런데 기업계열은 기능별로 볼 때 판매계열 자본계열 및 기술계열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ibid, p.550) 종래 일반적으로 기업계열이라 하면 지배 종속의 관계에 따른 자본계열이 중심이 되어왔으므로 이것 만을 기업집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에 보는 재벌형 기업집단이다.

## 2. 기업 집단의 유형

기업 집단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재벌형 기업 집단([11] pp.14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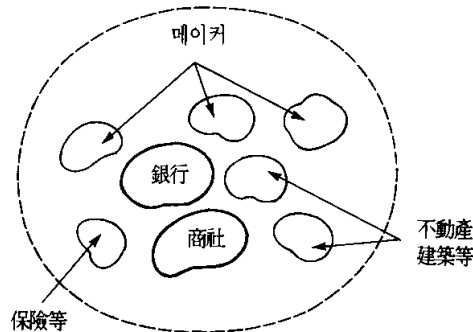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기업 집단이다.

① (일본의)구재벌회사와 같은 중추기관은 없으나 시장기회 등을 통해 그룹내의 주요 기업간의 정보교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그룹내의 기업간에 주식의 상호보유가 상당한 규모로 장기적으로 행해지며 사장회를 구성하는 기업의 사장은 상호간에 다른 기업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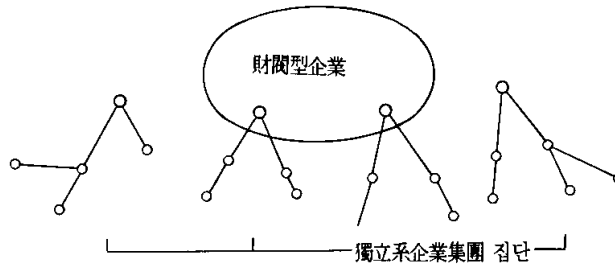
③ 금융거래의 중심에 대은행이 있고 흔히 임원파견, 계열융자 등을 통해 그룹내 기업을 중시하는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④ 영업거래의 중심에 대상사(副士)가 있어서 흔히 주식보유, 임원파견도하여 그룹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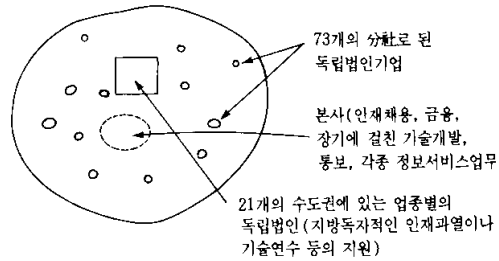
<그림 1> 재벌형 기업집단 유형

자료: [11] p.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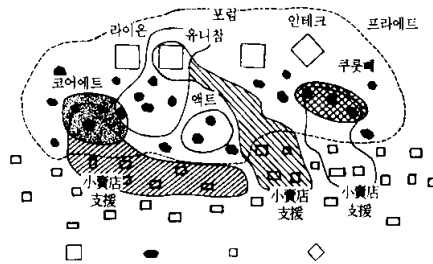
<그림 2> 독립형 기업집단

자료: ibid, p.144)



<그림 3> 분사형 기업집단

자료:[11] p.148)



<그림 4> 독립형 기업집단

자료: ibid, p.108)

상호간의 거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주종 산업의 상위에 있는 기업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 2) 독립형 기업집단

유력한 대기업을 핵으로하여 형성되는 관련기업의 집단이다. (ibid., p.147))

### 3) 분사형 기업집단

통합 기능을 가지는 중추적 내부조직은 없으나 업무내용에 따라 分社化하고 그룹을 통괄하는 중추기능은 분사화된 독립기업의 정보교환이나 완만한 조정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기업집단이다.

### 4) 네트워크형 기업집단 (= 기업 네트워크)

제도상의 연결관계의 존재여부와 관련없이 정보의 공유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간에 실질적인 연결과 어떠한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집합으로서([11] p.141) 공식적인 자본적, 인적 연결이 없는 독립기업의 네트워크이며 핵이 되는 기업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통합성이 있는 기업집단이다. (ibid. p.155)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기업간의 연결의 양식에 자본적, 인적인 강한 관계(있어도 좋으나)가 필요조

건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연결의 기술적 수단으로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실제상으로 대다수의 기업 집단은 혼합형으로서 경쟁 환경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권화 집중화와의 힘이 작용하여 기술·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3.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독과점과 관련하여 규정된 대규모 기업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2] pp.92-93)

“1991년 현재 총자산 4천억원이상의 자본계열인 재벌그룹을 말한다. 경제력 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기업과 구분하여 출자 등 경영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은행 여신 관리를 받는 재벌 계열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제도는 1987년 부터 공정거래법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61개 대규모 기업 집단은 상호 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또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계열사 출자 역시 규제되고 있다.”

이에서 보면 대규모 기업 집단을 재벌형 기업집단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벌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기업 집단인가?

### 4. 재벌 개념의 검토

재벌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학술적으로 정착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10] p.16, [8] p.8) 재벌의 정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가족이 폐쇄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인데 이는 기업 결합조직 형태로서의 콘체른화하기 이전에도 재벌은 존재하였다고 하는 일본의 경영사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4] p. 주1)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재벌이란 “많은 다각화된 사업 영역에서 가족 집단이나 관계자가 소유·경영하는 대규모회사로 구성된 기업 그룹(business group)” ([28] p.97, [26] p.34)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콘체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내려지는 정의인데 이 입장에서는 “수직적, 자본적인 독점 조직으로서 조직형태면에서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생산, 판매, 금융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다각경영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종합 콘체른이고 자본 축적형태 면에서는 상하 기업들의 자기 자본의 대부분을 재벌 가족이 독점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지주 회사에 의해 폐쇄적으로 장악되고 있는 가족 콘체른" ([7] p.13)으로 정의하는 견해이다. ([12] p.151)

일본의 경우 재벌(전쟁 전의)을 비재벌 즉 전후의 기업 집단이나 기업 계열과 구분하는 기준을 재벌 동족의 폐쇄적 소유·경영지배의 여부에 있다는 데에 학계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5] p.16)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전쟁 전의 재벌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 ([4] pp.1-2)  
첫째, 가족·동족의 개념과 구조가 다르다.

둘째, 소유·경영의 지배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재벌이란 전형적으로 하나 또는 둘의 가족 집단에 의해 소유·지배되어지고 여러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다수의 회사 사업체(corporate enterprise)로 구성되는 재무적 클리크(financial clique)이다.

재벌은 그 활동 영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6] pp.32-36)

① 웬셋트(one set)형: 수직적 통합과 다각적 통합을 고도로 진전시켜 다수의 산업 분야를 폭 넓게 전개하는 유형이다. 이는 일본에 독특한 재벌발전 형태라 하듯이 구미의 재벌에는 드물다.

② 콩글로메리트(conglomerate)형 : 196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복합기업형이다.

③ 관련 산업형: 특정 또는 소수의 산업 분야에서의 수직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유형이다. 미국의 듀폰, 포드, 독일의 쿠르프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 금융·서비스형: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산업 분야에서의 수직적 및 다각적 통합에 의해 형성되는 유형인데 금융기관을 중핵으로 하는 직계의 그룹을 가지고 주식 보유나 금융 서비스를 통해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나 결합 강도는 낮다. 유럽의 로스차일드가 여기에 속한다.

⑤ 서비스 산업형: 금융기관을 중핵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해운, 무역, 호텔 등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중핵으로 하고 주로 각종 서비스 산업에 투자하여 그룹을 형성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의 유형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회사	유 형	업 종	종업원수(천명)
삼성	원 셋 트	무역, 제당, 섬유, 건설, 전자, 기계, 유통	180
현대	원 셋 트	건설, 중공, 자동차, 알루미늄, 시멘트, 전자	160
LG	관련 산업	화학, 전기·전자, 석유, 무역, 증권	90
대우	원 셋 트	무역, 중공, 자동차, 전자, 건설, 화학	85
쌍용	원 셋 트	제지, 시멘트, 석유, 중공, 전자, 무역	22
한진	서 비 스	항공, 운수, 해운, 보험, 선박	36
롯데	콩글로메리트	식품, 무역, 유통, 여가, 기계, 화학	30
포항	관련 산업	철강, 전자 재료, 정보	24

〈그림 3〉 한국재벌의 유형

#### Ⅳ. 대기업을의 평가

##### 1. 대기업을의 효율성의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따를 때 경영학의 연구 대상은 단독적인 의사 결정 주체로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 기업과 자본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자본 계열형 집단 기업인 재벌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하 대기업을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 미국에서는 대기업을과 관련되는 논의는 고전파적 자유방임론에 입각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이 주장은 다수의 다시 말하면 작은 경제단위 간의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각 경제단위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경제 전체의 진보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었다.

그런데 1880년대의 미국 사회에는 규모가 큰 소수의 대기업을이 출현하여 비경쟁적·독점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들 대기업을에 대한 비판이 생겼다. 이에 대해 대기업을 옹호론자는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대기업을이 반드시 독점체는 아니며 항상 잠재적인 경쟁업자와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만약 트러스트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강요하면 이들 잠재적 경쟁업자는 곧바로 시장에 참(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기를 겪고 과점 이론이 발달하자 다시 비판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 중에는 대기업을 예찬론이 지배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전시 중에 대기업을은 높은 생산 효율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cf [9] pp.187-190)

그러면 대기업을은 과연 효율적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의 두 가지 흐름

이 있으며 이 문제는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의로 나누어진다.

- ① 대기업은 과연 중소기업보다 효율적인가?
- ② 대기업은 과연 충분히 경쟁적인가 아니면 독점적인가?

대기업의 효율성은 미국의 경우 19세기말의 트러스트시대 이래로 항상 대기업옹호론의 논거가 되어 왔다. 트러스트의 아버지로 불리던 프린트(Flint, O.R.)는 “대기업의 경우 고속이고, 자동적이고, 코스트가 싸고,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이루어져서 절약이 생긴다”고 하였고 이 이외에도 유능한 인재의 확보, 관리직과 기술직 사이의 직능 분화와 전문화, 구매의 집중과 대량 계약, 거래 활동의 중앙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릴리엔탈(Liliental, D.E.)도 그의 저서에서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고 공업의 기본적인 상품의 생산비를 최저로 유지하려 한다면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3] pp.107-108)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9] pp.192-193)

- ① 대기업은 관리메커니즘 면에서 충분히 효율적이 아니다.
- ② 대기업의 성장은 그 효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독점력 덕인 경우가 더 많다.
- ③ 생산비나 이윤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규모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 ④ 대기업의 효율성은 대다수의 경우 소비자에의 코스트 전가와 같은 사회적 희생 위에서 실현된 것으로서 그것은 순절약이 아니다.
- ⑤ 대기업은 반드시 기술 진보를 보증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의 한계성의 문제는 기업 내부에서의 적정 규모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 2. 대기업의 독점성

그러면 대기업은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도 1880년대 이래로 오랜 논쟁이 전개되어 왔고 찬, 반 양 주장이 맞서 왔다. 예컨대 “기업 결합이 독립 기업의 경쟁 대신에 중앙집권적인 합병 기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독점이라 불리도 상관없을 것이다.” ([18] p.66)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실제상 자본의 집적은 반드시 참된 독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인 집중 경향은 보다 생산적인 기업형태가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트러스트를 억제하는 힘은 잠재적인 경쟁이다. 현재는 잠재적이지만 만약 고가격이 수탈되고 있으면 곧 바로 기업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쟁 기업은 현재의 고가격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것이다.” ([15] pp.405-407)라는 반론도 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챔버린의 저서 ([14])의 출판으로 미국의 반트러스트사상은 다시 새로이 전개되게 되었다. 그의 주장의 특징은 독점을 과점의 극한 상황, 또는 과점을 저차원의 독점으로 해석하였다는데 있다.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2] p. 3-4)

“만약 기업 활동이 둘 또는 셋의 대기업의 지배하에 집중된다면, 만약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액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또한 만약 대규모의 판매자가 단위당 생산비를 인할 수단으로써 거래액을 확대하려는 강한 유인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은 가격 인상과 판매액 축소의 정책을 택할 것이다. 공격적인 경쟁은 자칫하면 다른 대기업의 공격적인 보복을 유인할 것이므로 각각의 대규모의 판매자는 공존공영을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업 단위가 소수로 대규모화하게 됨에 따라 경쟁의 강도는 약화되고 기업 정책은 더욱 독점적 성질을 띠게 될 것이다.

### 3. 대기업의 정치·경제 지배력 문제

대기업 체제는 개별 기업의 특정의 행동의 결과로서 가격 관리, 생산 감축, 초과이윤이라는 반사회적인 경제 현상을 생기게 함과 아울러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면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생긴다.

소수의 대기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의 유산 계층이 미국의 경제 체제, 정치기구 및 문화시설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가져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파생되고 있다고 지적, 비판되고 있다. 코르크는 “오늘날 미국에서의 경제력은 저축과 소득에서 생긴 것인 한 그것은 인구의 1/10 이상도 포함하지 않는 소수의 계급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 계급의 이해(利害)나 생활양식은 그들을 미국 사회의 기타 부분과 명확히 단절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계급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엘리트가 법인 기업 구조 즉 미국의 경제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고 또한 이를 통해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가격이나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다” ([22] p.127)고 비판되고 있다.

대기업은 한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과 공적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여러 가지 결점이나 폐해 또는 그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공공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루즈벨트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 p.212)

“만약 우리 나라의 기업이 성실히 조직되고 경영된다면 단순한 규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은 그와 같은 규모는 비행을 할 가능성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국가나 여러 주(州)는 대기업에 대해 소기업에는 불필요한 통제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V. 결 언

이상에서 기업의 경제의 확대에 따라 형성된 기업 집단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정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업의 성장 과정상 자본의 집적·집중에 따른 기업 규모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이상 필연적이므로 기업 집단을 경영학의 연구 대상으로 정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기업집단경영론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만 할 것이다. ([3] p.656)

둘째, 기업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정립할 때 기업형태의 발전 동향 즉 단독 독립 기업(개인 기업)형태에서 기업 집단 형태로 나아가 기업 집단은 재벌형으로부터 네트워크형으로 이행되어 가는 동향에 비추어 볼때 기업집단 경영률수 연구의 중심은 재벌경영들이 아니라 기업네트워크관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집단들의 발전동향은 재벌형으로부터 기업네트워크형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연하게 중층(中層)적으로 결합된 시스템(loosely coupling system)”으로 정의되는 네트워크 개념은 기존의 시스템 개념은 가지는 경직성을 벗어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라는 점에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의 기업의 집단화는 재벌형과 같이 소유·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유형으로부터 정보 공유형의 네트워크형이 중심이 되리라 전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단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개념의 확대로서의 기업 집단은 자본 조직체간에 입각하는 재벌형 기업집단이 아닌 중소기업 등 독립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업 조합 기업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자본의 집중·결합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재벌형 기업 집단인 대기업은 여러 면에서 경제 성장에의 공헌도도 높으나 반면 여러 가지 결함이나 관점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산업 재편성의 관점에서는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성장하도록 지원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경영학은 협업 집단의 경영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지식의 창출·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덩치만 커서 대기업으로서의 특질을 갖지 못한 개인 기업 연장형의 비관련 다각화 중심의 재벌형 기업 집단의 근대화를 위한 탐구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인 독립기업과 기업 집단에 대한 실태 규명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金元銖, 現代企業論-企業經營學序說-, 서울, 文音社, 1990.
- [2] 金元銖, 新 經營學原論, 서울, 경문사, 1994.
- [3] 金元銖, 新 經營學原論, 全訂版, 서울, 경문사, 1975.
- [4] 金永郁, 삼성의 다각화과정과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 [5] 下谷政弘, “いわゆる ‘コンサル’ 考”, 경도대학경제학회, 경제논총, 1986.2, pp. 149-1, 2, 3.
- [6] 井上隆一郎編, 新版 ASIA의財閥と企業, 동경, 일본경제신문사, 1994.
- [7] 安岡重明編, 日本の財閥, 동경, 일본경제신문사, 1976.
- [8] 小林規威, 外編, 現代經營事典, 일본경제신문사, 1986.
- [9] 小原敬士, BIG BUSINESS論, 동경, 丸善株式會社, 1971.
- [10] 森川英正, 日本財閥史, 동경, 교육사, 1978.
- [11] 今井賢一, 小宮隆太郎(1989), 日本の企業, 동경, 동경대학출판회.
- [12] 降旗武彦, 他編, 經營學小辭典, 동경, 有斐閣, 1981.
- [13] BLACKFORD, M.G., THE RISE OF MODERN BUSINESS I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J.TR.) 1988.
- [14] CHAMBERLIN, E.H.,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HAVARD BUSINES UNIVERSITY PRESS, 1933.
- [15] CLARK, J.B., “THE MONOPOLIES INVITE RETAILING TRUSTS,” CHICAGO CONFERENCE ON TRUSTS, 1900.
- [16] EEWING, A.S. “A STATISTICAL TEST OF THE SUCCESS OF THE CONSOLID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21.

- [17] EDWARDS, C.D., MAINTINING COMPETITION, McGrawhill, New York, 1949.
- [18] GLOVER, J.B. "THE ATTACK ON BIG BUSINESS", BOSTON: Division of Reasearch,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1954.
- [20] JACOBY, N.H., CORPORATE POWER AND SOCIAL RESPONSIBILITY, NEW YORK, MACMILLAN, 1973.
- [21] KAYSSEN, C.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MODERN CORPO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7.
- [22] KOLKO, G. WEALTH AND POWER IN AMERICA: An Alanalysis of Social Class and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Paraeger, 1962.
- [23] LILIENTHAL, E.E., GIG BUSINESS: A NEW ERA, CARDINAL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 [24] LIVERMORES, S. "THE SUCCESS OF INDUSTRIAL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35.
- [25] SCHONPFLUG, F., UNTERSCHUNGEN UBER DEN ERKENNTNISGEGENS- TAND DER ALLGEMEINEN UND THEORETISCHEN BETRIEBSWIRTSCHAF- TSLEHRE ALS LEHRE VON DEN WIRTSCHAFTLICHEN GEBILDEN, C E POESCHEL VERLAG, STTUTGART, 1936.
- [26] Steers R.M., YOOKEUN SHIN & G.R. UNGSON, THE CHAEBOL, KOREAN NEW INDUSTRIAL MIGH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9.
- [27] WILLIAMSON, D.E.,. MARKET AND HIERARCHIES :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 NEW YORK, FREE PRESS, 1975, NN, LTD, 1981.
- [28] YOO SANGJIN & SANG M. LEE, "MANAGEMENT STYLE AND PRACTICE OF KOREAN CHAEBUL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SUMMER, 1987.